

SBS 매거진 11

1998



TV Ch 6 / AM STEREO 792KHz / POWER FM 107.7MHz
<http://www.sb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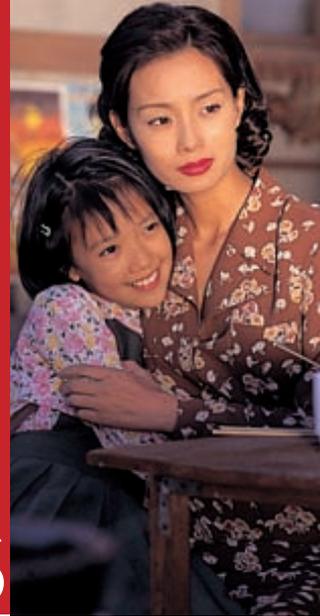


철제된 멘트로 편안함을 주는 김형민 앵커는 앞으로 건강한 시선으로 시대 정신을 감싸안는 활기찬 뉴스, 어려운 시대를 시청자와 함께 이겨 나갈 따뜻한 뉴스를 많이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SBS 8 뉴스」 앵커석에서 새로운 각오로 마음을 다진다.

사진 / 서창식

11

CONTENTS



4 새 드라마 / 주말 극장 「흐린 날에 쓴 편지」
웃음과 화해로 풀어 낸 우리들의 초상 · 주정미

8 새 드라마 / 월화 드라마 「은실이」
모노톤의 풍경화 속의 담긴 삶의 진실 · 김명순

12 새 드라마 / 일일 연속극 「미우나 고우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랑의 울타리 · 이미숙

16 창사 특집 프로그램 / 자연 다큐멘터리 「한국의 패류」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애정 · 윤동혁

20 커버 스토리 / 「SBS 8 뉴스」 김형민 앵커
"건강한 시대 정신 전할 터" · 이병률

22 새 앵커 / 주말 「SBS 8 뉴스」 이영춘 앵커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요"

24 새 앵커 /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이창섭 앵커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추구합니다" · 김유석

26 새 프로그램 / 「TV 돌보기 우리는 지금」
총체적 사회 모순을 고발하는 양심의 돌보기

27 초점
저녁 7시, SBS를 주목하십시오! · 김승미

32 '98 슈퍼 엘리트 모델
꿈꾸는 자들의 아름다운 비상, 그 설렘

36 라디오 세상 ①「SBS 명동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서울의 자존심, 명동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 · 구경모

38 라디오 세상 ②「선데이 파워 BGM」의 일인 지역의 세 프로듀서
특급 작전 '라디오 일병 구하기' · 박건삼

40 시청자가 쓰는 방송평

42 TV&라디오 편성표

46 '98 GENERATION NEXT SBS 신세대 가요제
신세대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 선보인 열띤 무대



매거진

1998년 11월호 통권 84호

SBS

- 발행 · 편집인 / 윤혁기
- 주간 / 신완수
- 부주간 / 이근용
- 기획 / 남지혜
- 사진 / 서창식 · 조광희 · 김연식

SBS 매거진 · 1998년 11월호
통권 제84호, 1998년 11월 1일 발행, 월간 비매품.
1991년 11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라-5316
발행처 / 주식회사 서울방송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전화 786-0792, 369-1114

편집 · 디자인 / 비 group 전화 382-3828
스캔 및 출력 / (주)스타트 전화 264-2050
인쇄인 / 권수석
인쇄 / 제일정밀인쇄 전화 637-2311

「SBS 매거진」에 실린 기사와 사진 등 모든 내용은 서울방송의 동의 없이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SBS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http://www.sbs.co.kr>입니다.

웃음과 화해로 풀어 낸 우리들의 초상

주말 극장 「호린 날에 쓴 편지」

극본 / 김운경

연출 / 이종수

10월 31일부터 토·일요일 저녁 8시 50분 방송



정말이지 IMF라는 동물은 잠시도 우릴 가만 놔 두지 않는다. 드라마에서조차 지긋지긋하지만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이 동물과 조우할 수밖에 없는데, SBS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회색빛 일상을 추스릴 내공을 길러 주기 위해 마약 채비를 마쳤다.

주말 극장 「호린 날에 쓴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 이룸난에서 커서를 멈추게 된다. 무사 평온한 가정을 깨어먹는 좀벌레쯤으로 치부하던 제비 춤꾼이 당당히 주연으로 등장해 우리를 박장대소케 하고 가라앉히기도 하는가 하면(「서울의 달」), 70년대 오지 산골의 정서를 향수와 해학으로 달래 주거나(「옥이 이모」), 밤 무대 인생의 다양한 삶을 보여 줬던(「파랑새는 있다」) 작가 김운경이 「호린 날에 쓴 편지」로 일주일 동안 신산함과 고달픔으로 지친 주말 안방문을 두드린다.

독특한 캐릭터 창조와 대가, 김운경 작가의 아심작

“IMF가 오기 전부터 이러다간 언젠가 당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방만하고 부패한 시슬 구조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IMF는 우리의 업(業)이자, 각성의 시대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불식간에 IMF 급류에 휘말려 고통받는 이들은 극 중의 삼형제처럼 지극히 표면적인 일상사를 근면 성실하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낙담하고

좌절한 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끄집어 내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고 보여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가 김운경의 작품에는 재미있고 독특한 캐릭터들이 많은 것으로 인상지워져 있다. 대개 사소한 이해타산의 삶에 대한 통찰력으로 파안대소케 하는 그의 남다른 기지, 정치 등 권력 주변 찌꺼기로 살아가는 부유 인생들의 속절없는 허구를 짚어 내는 예리한 유틸 등으로 주연 같은 조연들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시청자들 역시 드라마를 시작할 즈음이면 그런 인물들을 찾느라 호기심 어린 탐색전을 벌일 만큼 그가 창조해 내는 캐릭터들에 잔재미를 붙였다.



오늘의 회색빛 일상을 추스리며 드라마 속 인물들과 함께 내공을 길러 나가는 힘찬 드라마 「호린 날의 쓴 편지」는 IMF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있다. 이 드라마는 사람 냄새 나는 서민들의 삶을 리얼하게 그려 호평을 받아 온 김운경 작가와 신 굿은 드라마를 제작해 온 이종수 프로듀서의 야심작이라 벌써부터 기대를 모은다.

지극히 평범한 중산층의 가족 이야기

아들 삼형제, 그것도 하나같이 개성 있는 아들을 길러 낸 장한 한국의 어머니인 소나무집 식당 주인 홍 여사(정혜선 분)는 아들들의 휴대폰 수거하는 일로 IMF 군살빼기를 시작한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큰아들 영범(김영철 분)은 연구실이 재정 부족으로 문을 닫자 실직하게 된 IMF형 가장이다. 그래도 그는 어머니와 살림을 합치기 위해 이삿짐싸기보다 송별회 참석이 더 중요한 사람이고 6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는 게 소원인 막내 동생 꿈을 집안의 기둥답게 일거에 깨 버릴 줄 아는 호기도 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제2야당 지구당 위원장이 된 이래 공천은커녕



관공비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홍범구(이정길 분)에게 꾸 준 돈 돌려받는 게 막막한 힘없는 가장이다.

판매 실적 부진으로 점점 설 입지가 없는 자동차 세일즈맨 영두(김석훈 분)는 앞친 데 걸친 격으로 차 대금을 미납한 선배의 차를 회수한다. 이 때문에 선배에게 맞을 뻔하다가 동료 여직원 은영(박윤현 분)의 이단 옆차기 한판 승부로 기사 회생한다. 그래도 형 영범에게 고달픈 삶의 애환을 토로할 때면 눈물을 비치는 고개 숙인 셀러리맨이다.

“영두는 좌충우돌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회사 조직에서 생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셀러리맨들의 자화상인 셈이죠.”

드라마 「홍길동」에서 홍길동으로 열연했던 김석훈의 배역 설명이다.

집안 막내로 자칭 포토 아티스트라는 영목(이주현 분)은 IMF가 터지자 어학 연수 6개월 만에 “그 놈의 달러 때문에” 유학을 접고 어머니 식당에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꿈꾸는 예술가다. 그래도 외국물 먹은 게 어딘데하며 그의 소중한 예술적 무기인 카메라는 여전히 ‘캐머러’로 불린다. 이런 영목을 사랑하지만 나체 모델 촬영만큼은 거부할 줄 아는 소나무집 종업원, 성숙(송희아 분), 그녀는 과연 영목의 사랑을 구할 수 있을까….

국전 심사 위원까지 지낸 흥 여사 건물에 세들은 서예 학원 원장 진촌(이순재 분)은 겉으로 보기에 근엄한 뼈대를 유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월세 내려 달라는 말은 애시



요즘 홍 여사(정혜선 분)의 얼굴엔 주름이 부쩍 늘었다. 산업 환경 연구원에 다니던 장남 영범(김영철 분)이 덜컥 정리 하고 당해 집에 들어왔고, 자동차 영업 사원인 둘째 아들 영두(김석훈 분)는 판매 실적 부진으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 막내 아들 영목(이주현 분)은 청운의 뜻을 품고 유학길에 오랐지만 고놈의 달리 때문에 귀국했다. 거기다 세든 사람들은 집세 내려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야말로 IMF 파고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홍 여사의 집안엔 흐린 날이 계속되고,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삼형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하는데...

당초 끼낼 엄두를 못 내 수제자 현당(김주혁 분)에게 떠넘기고, 초등 학교 문하생이 두고 간 새우깡을 시침 뚝 떼고 가로채는 재미있는 인물이다. 그외에 가격 할인이란 한문을 못 읽어도 장사하는 데는 별 지장 없다는 카페 여주인 오 마담(홍여진), 기회만 생겼다 하면 일장 혼시에다 자기 자랑이 장기인 말 많은 김 대리(김승욱 분) 등 절로 실소를 자아낼 만한 유형들을 「흐린 날에 쓴 편지」에서도 만날 수 있다.

드라마속 삼형제 IMF 격랑 어떻게 헤쳐 나갈지

“캐스팅에서 신인들이 많은 건 개성이 강한 작가의 역량을 믿은 것이죠. 사랑을 기조로 하는 많은 드라마 공식을과는 다른 드라마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삼형제가 IMF 격랑을 헤쳐 나가는 게 중요하지만 불투명하고 힘들 때 오히려 이들을 자극해 아프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음을 긍정적으로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다지」 「야망의 세월」 「장희빈」 「궁합이 맞습니다」 등을 연출한 이종수 프로듀서의 연출 변(嬗)이다.

주로 서민 드라마를 써 온 작가 김운경이 중산층의 애환을 다룬 드라마 「흐린 날에 쓴 편지」는 처음 읽는 것부터가 암담하고 흐리다. 작가 자신도 무엇이, 어떻게 될지, 많은 판단과 선택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불투명성에 시청자들은 많은 기대치를 걸어 두어도 실망할 일이란 없겠다. **SBS**



글 / 주정미 · 자유기고가, 사진 / 서창식

모노톤의 풍경화 속에 담긴 삶의 진실

월화 드라마 「은실이」

극본 / 이금림

연출 / 성준기

11월 9일부터 월 · 화요일 밤 9시 55분 방송

우리 사회는 지금 전체적으로 홉리스 현상에 몸살을 앓고 있다. 너 나 없이 언제 길거리에 나왔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린다. 한 집안에 실업자가 한 명이면 보통이고 두 명인 경우도 흔하다. 건너기 힘든 강처럼 도도하게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어서 이 바람이 지나갔으면 싶은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있는 심정. 서글프기만 한데... 불현듯 낡은 흑백 사진처럼 떠오르는 삽화 하나. 시키면 보리밥에 고추장 쓱쓱 비벼 먹으면서도 행복했던 날들, 동치미 무료 달래 보던 긴 겨울 밤의 허기, 어머니가 선심 쓰듯 신기로 장수에게 내맡기던 낡은 고무신, 싸구려 화학 털실로 짜인 스웨터의 조악하지만 너무 예뻐던 때깔 등등. 아, 그 가난했던 기억 속에 그러나 서글픔은 없다.



박정희 정권의 '혁명과 재건' 바람이 열병처럼 퍼지던, 그러나 50년대의 배고픔과 신산스러움이 남아 있는, 60년대 모노톤의 풍경을 뒤로 한 월화 드라마 「은실이」가 모래 바람 버섯이는 우리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셔 준다.

지독한 운명을 개척할 줄 아는 삶의 지혜, 이 드라마의 주인공 '은실이'는 그 비밀 열쇠를 은연중에 시청자들의 손에 쥐어 주는데... 천성적으로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좌절할 줄 모르는 은실이, 그녀가 선량함과 깨끗함으로 자신의 불행을 헤쳐 가면서 '삶은 그래도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은연중에 느껴지는 우리들 인생의 깊이

그런데 이상하다. 적어도 밥은 굶지 않게 된 지금(물론 노숙자들은 밥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급식소를 찾아 전전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그만한 시설마저도 없지 않았던가), 우리는 배가 고프고 까닭 모를 서러움에 가슴을 오랫동안 싸안고 있어야 한다. 왜일까? 아 그래, TV 탓이 크다. 그 곳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과 사는 아름다운 나라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속할 수 없는 것이다. 굳이 조지 오웰의 『1984년』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TV는 어느덧 우리 일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자꾸만 즐겁게 한다. 돈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오락거리인 TV, 하지만 그 나라의 노래에는 '밥'이 없다. 특히 드라마의 경우는 심하다. 돈과 밥을 초월한 신세대들의 보기에다 벽찬 사랑 노래만이 가득하다.

SBS 일산제작센터의 오픈 세트장에는 1963년 지방의 소읍 화산 거리가 그대로 들어섰다. 이곳이 월화 드라마 「은실이」의 주 촬영 장소인 까닭이다. 시골 장터를 중심으로 한 허름한 마을 풍경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보여 주지만 왠지 정경기만 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드라마에 있기 때문이다.



“나도 저런 나라에서 저런 노래나 부르고 싶어”라고 절규하고 싶은 마음 억누르면서 서둘러 채널을 바꾸는 것으로 위안하는 우리 시대의 키 작은 마음들.

이런 키 작은 마음을 위무해 줄 드라마가 매주 월, 화요일 밤 안방 극장에 찾아든다. 우리 기억 속에서 가뭇없어져 가는 시절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은실이」가 정겹게 이마를 들이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울 것은 없다. 그 시대를 풍경으로 한 드라마가 그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니까. 다른 방송사에서 현재 방영하고 있는 작품도 있다. 그런 류의 드라마는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향수 여행을 선물한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다. 좀더 심하게 말하자면 풍경은 보았는데 ‘테마’가 없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월화 드라마 「은실이」는 다르다. 지금 대입해도 손색이 없는 인간사의 굴곡들, 궁핍하기만 했던 유년기를 건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지한 삶의 한 이면과 대면하게 된다.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헤쳐 온 한 여자의 인생을 통해 ‘울부짖지 않고 진지하게 삶을 통찰’하게 되는 것이다.

굵은 산맥 같은 명배우와 양념 감초들이 한 자리에

「은실이」는 잔잔한 감동으로 장안의 화제가 됐던 「옥이 이모」 「달팽이」를 연출했던 성준기 프로듀서와 관록의 작가 이금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그것만으로도 기대치는 벌써 저만큼 올라간다. 거기에 이름 석 자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배우들이 합세했다. 오랜만에 얼굴을 내민 원미경(장낙도의 분처 임청옥 역), 색깔 있는 연기파 배우 이경영(은실 생부 장낙도 역), 얼굴 주름살 하나에 인생사를 엮어 내는 반효정(임청옥 친정 어머니 역),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김원희(은실 생모 길례 역) 등이 「은실이」를 통해 인사한다.

캐릭터 강한 인물의 대명사인 감초 배우들의 출연도 눈길을 끈다. 김창완(장낙도의 술 친구이자 개인 병원 원장 역), 정경순(국밥집을 운영하는 맹순모 역), 임현식(사진관 집 주인 역) 등이 합세했으니 굵은 산맥 같은 배우들과 양념 감초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면면들이 화면을 채우게 될 것이다. 주인공 은실이와 함께 우리들의 유년의 유쾌함을 보여 줄 꼬마 친구들도 드라마 제작 현장의 열

기를 더해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은실이는 아버지 장낙도가 바람을 피워서 태어난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다. 어린 아이가 견디기에는 힘겨운 고난들이 예고된 운명의 이 아이는 생모에게서 버림받고 아버지 집에 부엌데기로 들어가 분처의 학대 속에 배다른 오빠, 언니에게 수



모를 당한다... 한 번쯤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한 토막이다.

우리의 '엄살'을 부끄럽게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

성준기 프로듀서의 말을 빌리자면 '자칫 칙칙한,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구질 구질한 이야기로 전락할 위험 요소가 다분한 내용'이다. 식상하려고만 하면 거침 없이 식상해질 수밖에 없는 테마인 셈. 하지만 이 아이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천성적으로 불평하거나 화내거나 좌절할 줄 모르는 이 아이는 그 선량함과 깨끗함으로 자신의 불행을 헤쳐 가면서 '삶은 그래도 살아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월화 드라마 「은실이」의 힘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게를 요란스럽지 않게 덜어 보겠습니다. 삶의 지혜를 현란한 칼라톤보다는 차분한 모노톤으로 소박하지만 풍성하게 담아 보겠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살아 있는 유머로 우리를 위무하는 드라마를...”

거리에 서면 자꾸만 눈길이 하늘가로만 치닫게 되는 요즘, 그래서인가 보다. 성준기 프로듀서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까닭이. **SBS**

글 / 김명순 · 자유기고가, 사진 / 조광희

드라마 「은실이」는 잔잔한 감동으로 장안의 화제가 됐던 「옥이 이모」, 「달팽이」를 연출한 성준기 프로듀서와 관록의 작가 이금림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기대를 걸게 한다. 여기에 원미경, 이경영, 반효정, 김원희 등 이를 석자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명배우와 김창완, 정경순, 임현식 등 감초 배우들이 합세해 시청자들을 향수 여행으로 초대한다.

자칫 배고프고 고단한 시절의 이야기라 칙칙해지기 십상이지만 연기자들의 감칠맛 나는 연기와 가슴 따뜻한 유머가 어우러져 은연중에 삶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새 드라마

희망을 노래하는 사랑의 울타리

일일 연속극 「미우나 고우나」

극본 / 김윤영

연출 / 유철웅

10월 19일부터 월~금요일 저녁 8시 55분 방송



눈에 보이지 않기에 공기의 고마움을 못 느끼듯, 가족 역시 너무나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어느 날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죽음 같은 병마와 싸워야 한다면, 그들은 가족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고 안아 주며 희생과 사랑으로 작은 기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시청자들은 잔잔한 감동이 함께하는 새 일일 연속극 「미우나 고우나」를 통해 어려운 시대의 든든한 힘은 역시 화목한 가정에서 시작

된다는 사실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될 것이다.

상쾌한 아침 공원 언덕길, 조깅을 하는 늘씬하고 예쁜 네 명의 여자, 그 앞에는 코미디언 이주일 품으로 경보하는 우스꽝스런 50대 남자, 그들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부녀지간임이 분명하다. 자신을 흉내내는 딸들을 '어쩔' 헛기침 한 번으로 제압하려는 아버지와 구세대라며 놀려대는 네 딸들과의 정겨운 말다툼을 듣다 보면 단란한 가정을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가정에는 네 딸 외에도 어느 날 느닷없이 일본의 고모댁에서 남자와 함께 돌아온 셋째딸과 끼니 때마다 애써 만든 국맛을 타박하는 간간한 할머니, 다섯 딸 뒤치닥거리 하라, 시어머니 눈치 보라 늘 피곤한 어머니까지, SBS 일일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는 이렇게 모두 8식구, 3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가족 드라마다.

화목한 기정이 보여주는 따뜻한 감동

“딸만 다섯인 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화해가 그 테마입니다. 일단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따뜻한 가족 드라마를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본은 물론이고 연기자들에게도 지나친 오버 액션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진짜 사는 얘기를 담는 거지요.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잖습니까? 지치고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진정한 위안은 가정의 화목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싶습니다.”

「도시남녀」, 「하이트 크리스마스」를 통해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방송가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드라마의 연출자, 유철용 프로듀서가 밝히는 기획 의도다.

“저,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족 드라마, 그것도 일일극을 쓰느냐고 걱정하시더군요. 선배 작가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젊으니까 뭔가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스스로에게 기대를 걸고 있어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 여자들의 다양한 삶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와 딸, 언니와 동생, 각기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자들은 여전히 양보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어요. 당차면서도 똘똘한 여자, 그러면서도 사랑을 지상 최대로 아는 여자, 어머니의 삶을 미워하면서도 이해하는 딸들... 아무튼 이 드라마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여자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유철용 프로듀서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윤영 작가는 자신있게 작품을 설명하며 야심찬 각오를 다진다. 그녀는 여러 드라마를 통해 그 역량을 인정받은 서른두 살의 신예 작가로서, 연기자들도 입을 모아 “작품이 좋고 대사가 입맛에 맞는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베테랑 연기파 배우들과 신인들과의 신선한 만남

이 드라마에는 베테랑 연기자들이 대거 출연한다. 집안의 제일 큰 어른으로 며느리에게 심통을 부리지만 아들과 손주는 끔찍이 아끼는 김애기 할머니役に 김용림, 독재자이면서도 자상한 다섯 딸의 아버지이자 효성이 지극한 아들 이영길役に 이영후, 효부이지만 시어머니와 보이지 않는 갈등을 삭이며 사는 어머니 강순녀 역은 고두심이 맡았다.

이영후는 자신 역시 딸만 돌이기 때문에 다섯 딸을 둔 이영길의 노심초사하는 심정을 백 번 이해한다고 말한다.

“이 드라마로 제 이미지를 회복하고 싶어요. 물론 강순녀와 비슷한 어머니는 그간 참 많이 했지만 대본을 받아 보고 한 마디로 느낌이 확 오더군요. 잘 될 것 같아요. 시청률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드라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두심은 현재 한 드라마에서 못된 계모로 나와 은근히 인기 전선(?)에 이상이 있을까 우려되던 참에 강순녀 역을 맡아 다행이라고 덧붙인다.

여기에 영화, TV, CF 등에서 다재다능한 끼를 발휘하며 신인 돌풍을 예감케 하는 신인 박진희, 이자영, 이요원의 기용도 눈길을 끈다.

강순녀의 다섯 딸 중 우아한 공주로 남고 싶은 노처녀인 첫째 딸 하나 역은 김혜선이, 집안의 군기 대장이자 강인하고 털털한 성격인 둘째 두나 역



은 박진희가,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일본에서 살다가 온 탓인지 개방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셋째 딸 세나 역은 최정윤이 열연한다. 신인 이자영이 분한 넷째 딸 미나는 동정심 많고 순수한 성격인 데가 어머니와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괜한 미움을 받기도 한다. 귀여운 애교 덩어리이자 말쑥꾸러기인 막내 딸, 빛나 역은 신인 이요원이 맡았다.



돈독한 우애 자랑하는 금지옥엽 다섯 딸

결혼 후 한동안 방송을 중단했다 오랜만에 다시 SBS 드라마를 통해 선보이는 김혜선은 어머니처럼 살지 않겠다며 홀어머니에 외아들에겐 절대 시집 안 가겠다고 버텼지만 결국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외아들 박만수(손현주 분)에게 시집간다.

“이주 재밌게 연기하고 있어요. 모든 딸들이 어머니의 삶을 거부하지만 훗날 되돌아보면 어머니와 똑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바로 저 자신이자 모든 여자들의 모습이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전 하나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문사 사회부 기자이자 두나의 상대역인 정동호 역을 맡은 최재성 역시 자연스러우면서도 매력 있는 바람둥이(?) 역을 멋지게 소화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가족 드라마

기라성 같은 대배우들과 신인들이 총출동하는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는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그리고 다섯 딸들의 사랑찾기를 잔잔하면서도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있다.

이 드라마는 넷째 딸 미나의 불치병으로 인한 가족간의 화해로 클라이막스를 맞는다. 병마와 싸우는 미나를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가족의 사랑만이 기적을 낳는다는 해답으로 이 드라마는 결말을 맺는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면서도 늘 보이지 않는 긴장과 갈등을 겪고,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때론 남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삶의 위안과 안식처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드라마 「미우나 고우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드라마가 아닐까. **SBS**

글 / 이미숙 · 자유기고가, 사진 / 김연식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애정

자연 다큐멘터리 「한국의 패류」

1부 : 단단한 조가비가 열리고

2부 : 살아지는 조개를 찾아서

연출 / 윤동혁

촬영 / 김형근

11월 14,15일 밤 10시 50분 방송



자연 다큐멘터리 「버섯, 그 천의 얼굴」, 「게」 「선암사의 비밀」 등으로 국내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자연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듀서로 호평을 받아 온 윤동혁 프로듀서는 일반인의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미물들에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 작품 소재로 채택한다. 그가 이번에는 120여 일 동안 전국의 해안을 돌며 패류들의 신비로운 세계를 아름다운 영상에 담았다. 오는 11월 14일, 15일 「한국의 패류」 1·2부 방송을 앞두고 제작에 얽힌 이야기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조개구이 많이 먹는 모양이야. 얼굴이 흰해.”

조개를 자연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잡은 필자에게 ‘잘 되어 가느냐’는 말 대신에 던지는 이웃 프로듀서들의 말이다. 버섯을 할 때는 ‘버섯 많이 먹느냐’, 게를 할 때는 ‘게 많이 먹느냐’, 그리고 보니 매번 요리감만 촬영 대상으로 잡았던 썸이다. 그러나 필자는 미식가가 아니다. 오히려 점심 시간에 택시 타고 멀리까지 나가서 식사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는 쪽이다.

버섯이나 게, 조개의 공통점이 있다면 ‘화끈한 소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베리아의 호랑이」라든가 「한국의 과충류」처럼 제목에서부터 기상과 전율이 느껴지는 소재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게도 볼 만한 내용이 있을까’ 걱정하게 만드는 미물들이었다.

필자는 살아가는 스케일이 작아서인지 작품도 오밀조밀하다. 판을 크게 벌일 위인이 못 되므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 나의 주제가 된다.

하지만 “왜 조개를 선택했느냐”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 방송위원회에 지원금을 받으러 갔을 때 심사 위원들이 물어 본 것 빼고는 말이다. 스무 명쯤 되는 심사 위원들은 과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조개에 안겨 주어도 좋을지 궁금해 했다.

“조개가 신기한 게 많습니까?”

“...(더듬더듬) 많습니다.”

자연 다큐멘터리에 대한 딜레마

말을 더듬은 것은, 내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들도 그렇게 느낄까’ 하는 의문과 함께 일단 그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연 다큐멘터리를 왜 만드는가’에 대한 필자의 대답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은 미물들에 관한 신비한 영상이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일반적 관심을 고조시켜 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방송이 나간 후, 보는 사람들은 그런 효과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갯벌이 소중한다고 아무리 간곡하게 이야기해도 갯벌은 대책 없이 망가지고 있으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자연 다큐멘터리가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많다. 물론 방송이 한 번 나갔다고 해서 당장 즉각적 반응이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필자는 표현 부족 곧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환경 보호라는 거창한 포부만 내세우고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꼈던 절망감과도 같았다.

‘신기한 것과 일상성 사이의 줄다리기

제작에 앞서 필자는 ‘뿔 속에 박혀서 수관만 빼꼼히 내놓고 있는 조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조개의 신비는 무엇인지’ 등과 같은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질문 앞에서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당혹스러웠다.

세상의 신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안개처럼 스며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느 순간 말할 수 없이 경이로운 느낌을 갖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신비를 다 담아 내고 싶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두 번째 신비 쪽으로 기울었다. 이럴 때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는 사물에 대한 열정과 욕심 사이에서 혼돈을 겪게 마련이다.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 분별력이 견고해져야 할 텐데 필자는 예전보다 더 큰 갈등과 욕심을 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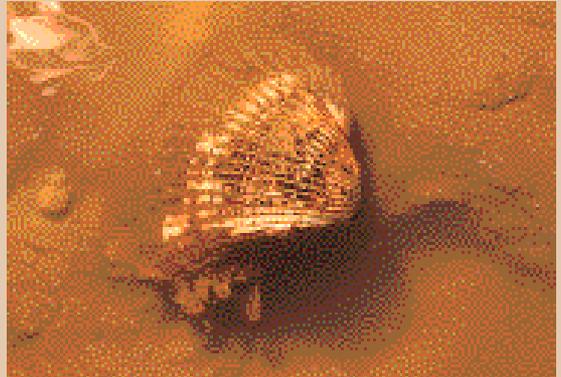
필자는 조개의 일상사를 옆으로 밀어 놓고 특별하고도 신기한 생태에 매달렸



30년 전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두드럭 조개비의 잔해.



수심 100미터에 서식하는 넓은 잎 물레고동(가운데) 남미산 사과 우렁이의 알에서 나오는 유패들(맨 위), 내장산 띠달팽이(아래).



전 세계의 패류는 11만 종에 이르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는 민물과 육상, 해산 패류를 합쳐 총 900여 종에 이른다. 이것들은 인간을 위한 식량으로뿐 아니라 생태계의 먹이 사슬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취재팀은 2월 초순부터 9월 중순까지 동해, 서해, 남해의 해안선은 물론 제주도까지 답사하며 20여 차례의 수중 촬영을 시도했다. 그 결과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민물 조개인 귀이빨대칭이(오른쪽 맨위), 남방 얼룩 고동(왼쪽 위에서 두 번째), 서울의 양재천에서 서식하는 조개(오른쪽 맨 아래), 진주 조개(왼쪽 위에서 세 번째) 등 갖가지 패류들이 연출해 내는 갖가지 신비를 성공적으로 촬영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패류의 생태계를 통해 환경 문제를 제시한다.



다. '조개는 어떻게 알을 낳는가' '논 우렁이는 새끼를 바로 낳는다고 하는데 찍을 수 있을까' '조개가 물 속에서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하는 말은 사실인가 ...'.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을 많이 촬영했다. 그러나 필자는 두 번째 신비에 매달림으로써 평범함 속에서 번져 나오는 첫 번째 신비를 많이 상실하고 말았다.

다시 조개를 촬영하며

구성과 편집 작업에 들어간 필자는 마치 눈 가린 말처럼 달렸다. 신기한 그림에 스스로 도취되고, 직접 글을 쓰면서 교만한 생각에 빠졌다. 완제품을 시사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올 리 없었다. 혼자서 몇 번 보고난 후에야 비로소 나의 잘못이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성우를 바꾸고 음악을 경쾌하게 만들어서 고쳐질 그러한 잘못이 아니라 기초 공사부터 잘못된 구조적 실수였다.

필자는 모두 허물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것은 여전히 아마추어이며 실수만 연발하는 필자 자신에 대해서 좀더 엄격해질 필요를 느꼈고, 아직도 신기한 그림이나 도취하는 어리석음을 반성하기 위해서였다. 조개에도 물론 미안했다. 그들의 일상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작고 보잘것없는 소재를 선택해 놓고 그들의 사소한 일상사를



소홀하게 다룬 것은 그야말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었다. 조개를 잘 표현한다기보다 '이 정도 화면이면 충분히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겠지'라는 단세포적 생각으로 꾸며 놓은 구성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자연 다큐멘터리나 특집을 끝내고 제작 후기를 쓸 때마다 다음 번 차례가 오면 결코 실패기를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또 쓰게 되었다. 대책 없이 이어지는 실패담은 언제 끝맺을 수 있을까—그것이 또한 스스로의 결단으로 가능할 것인가—심란하다. **SBS**

글 / 윤동혁 · 「한국의 패류」 프로듀서, 사진 / 서창식



2년 만에 같은 자리에 앉게 됐지만 여건은 많이 달라져 있다. 그 달라진 여건 가운데 우선시되는 상황은, 이제 뉴스도 달라져야 하는 시대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시 줄기를 잡아야 할 일이 많다는 것과 다분히 긴장해야 한다는 보도국의 현 상황을 입증해 주는 토대가 된다. 그래선가, 「SBS 8 뉴스」가 새로운 변화를 표방하며 열심히 노력중인 때에 동참하게 된 김형민 앵커의 감회는 남다르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뉴스, 그것은 김형민 앵커가 원하는 제1의 목표다. 반듯하고도 건전한 시대 정신이 담긴 뉴스로 이 어려운 시대를 함께 견디고, 이겨내는 일, 보고 듣고 싶어하는 뉴스를 가려 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달할까에 대해 방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는 일, 또한 중점적인 심층물의 확대와 경제·스포츠가 강화된 뉴스, 아울러 시청자들의 여론과 의견을 반영하는 뉴스를 만드는 일. 이 정도가 그가 만들어 내고 싶은 「SBS 8 뉴스」의 새 줄기라 할 수 있다.

그는 시청률을 의식하거나 시청률에 영합하는 앵커는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앵커는 기자들의 기사를 충실하게 전달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뿐 스타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 7개월 반 동안 「생방송 출발! 모닝 와이드」를 진행하면서 2시 반에 기상해서 3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그때 규칙적인 생활이 얼마나 자신의 생활이나 일

「SBS 8 뉴스」 앵커

“건강한 시대 정신 전할 터”

에 축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좋아하는 술마저 절대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져야 할 필요를 느꼈어요. 규칙적인 생활에 있어 건강에 대한 안배를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신적인 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절제된 멘트로 신뢰를 쌓아가는 편안한 앵커

1984년 방송 기자로 방송계에 입문한 그는 주로 정치부와 국제부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면서 SBS 초대 파리 특파원을 거쳤다. 불혹을 맞이 하기전에 이미 앵커의 경험을 쌓았고, 다시 우리 앞에 돌아와 절제된 멘트와 편안함을 주는 앵커로서 뉴스 진행을 하고 있다.

“파리 특파원 시절을 거친 후에 아주 큰 걸 안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곳에서의 생활은 유럽 각지를 소화하느라 힘들고 바쁜 일들이 많았죠. 그 가운데서도 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등바등 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편협해질 뿐 아니라 같이 살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부족하기만 하죠. 사람을 감싸안는 시각, 따뜻한 편안함. 이것들은 삶의 여유를 통해 가능하단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곳에서 삶의 다양성을 익힘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다고 밝힌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부터 사람 사이로 걸어 들어가 인간적인 그들의 체취를 맡고, 그들의 정신과 함께하기를 끊임없이 시도한다.

김형민



진솔한 삶에서 출발하는 뉴스

그는 건강하다. 그의 건강은 항상 정신의 중심에 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부터 자신이 정해 놓은 삶의 기준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중심을 조율한다. 열심히 살되 집착하지 않는 삶, 그리고 크게 웃으면서 사는 삶, 사랑하면서 사는 삶. 그가 정해 놓은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과 당당히 맞서 싸울 때 그는 진실로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루의 선봉에서 있는 김형민 앵커, 그가 하루 중에 제일 큰 보람을 느꼈을 때 또한 그 날의 뉴스를 마치는 시점이다. 그가 매일 매일 「SBS 8 뉴스」의 클로징 멘트를 마칠 때, 그 날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의 문제는 비단 앵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스튜디오를 나와 그 날 하루를 잘 보냈다는 믿음을 떠올리면서 그는 다시 다른 하루를 떠올릴 것이다.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는 그의 여행길은 다분히 고단하겠지만 우리는 건강한 시선으로 시대 정신을 감싸안는 그의 뉴스와 함께,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달라진 뉴스를 기대하지만, 이 사회의 주체는 바로 우리일 테니까 말이다. SBS

글 / 이병률 · 시인, 사진 / 서창석

이영춘의 SBS 8 NEWS



주말 「SBS 8 뉴스」 앵커

이영춘 앵커는 SBS 내의 특종상을 다 휩쓸 정도로 굼직 굼직한 특종을 수도 없이 터뜨린 특종 기자다. 그만큼 소명 의식을 갖고 일에 임하는 그는 이제 주말 「SBS 8 뉴스」 앵커로서 어렵고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암울한 사회 분위기를 회생 시키겠다고 각오가 대단하다.

워낙 쟁쟁한 선배들과 함께 치러진 오디션이라 막내인 이영춘 기자로서는 앵커 자리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스튜디오에서 여자 앵커와 함께 치러진 약 20분 간의 오디션이었다. 그때, '마음을 비우고 부담을 털자'는 생각을 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그랬는데 덜컥 오디션을 통과하고야 말았다. 앵커로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그는 그 길로 왓지떨친 시장을 찾아갔다. 그는 시장통에서 바라본 시장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곰곰히 생각했다고 한다.

이영춘 앵커는 이미 '안산 한양 아파트 부실 시공 사건' 과 과거 민주당 부정 선거를 고발한 '의문의 집단 투숙', 그리고 '경기 북부 광견병 확산', '용인 공군 참모 총장 헬기 추락 사고',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등 그야말로 굵직굵직한 특종을 터뜨린 이른바 특종 기자다. SBS 내의 특종상을 모두 휩쓸 정도로 그가 이뤄 낸 일들은 꽤나 많다. 하지만 그는 많은 기회가 자신한테로 왔기 때문이고, 취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특종을 잡는데 도움이 됐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한다.

그가 취재한 '안산 한양 아파트 부실 시공 사건' 은 보도 이후, 안전 불감증에 걸린 이 사회와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싶어요”

다. 그 때 자신의 일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무한대의 폭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소명 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힌다.

나의 자리 그런 소릴 종종 듣는다.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인 것 같다고. 방송 기자라는 직업이야말로 타고난 직업 같다고. 그런데, 진짜로 어느 날 눈을 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일에 몰두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일 아마도 일에 대한 비중은 내 삶의 70에서 80퍼센트에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부끄럽다. 그 나머지 부분, 이를테면 가정에는 그만큼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을 테니까.

주말 「SBS 8 뉴스」 물론 내 능력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특별한 그 어떤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어렵고 지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들에게 따뜻한 도움이 되는 뉴스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어렵고 지친 사람들이 활력을 찾아야 이 암울한 사회 분위기도 회생된다고 믿는다.

행복 아침에 나는 행복하다. 일상이라고 치면 매일 반복되는 아침이 지겨울 때도 있지만 가끔은, '오늘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를 생각하며 막연한 기대를 가져 보게 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날그날에 따라 주어지는 것은 다 다를 테니까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처럼 스트레스 강도로 따지고 볼 때 최우위를 차지하는 직업을 들라면 바로 기자를 들 수 있다. 기자라는 직업을 '무한 책임의 일'이라고 하는 그는 늘 스탠바이해야 하는 직업적인 고충을 단순한 고충이 아니라 이 일의 매력이라고 말한다. 매일 매일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느 스포츠맨 못지않은 체력과 순발력, 그리고 판단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창섭 앵커의 하루는 늘 전쟁과도 같이 치러진다.

이미 5년여 동안 「생방송 출발! 모닝 와이드」에서 보도국 앵커석을 지켜 온 경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침 방송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차라리 처음 이 자리를 맡는 사람은 이렇게 어렵단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많이 해 본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그는, 그럴수록 더 바짝 들어앉아 일에 매달려야 한다고 자신을 채근한다.

사람들은 흔히 그를 침착하고 튀지 않는 성격에 호감 가는 인상이라고 말한다. 그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그런 타입의 사람이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사고는 일을 위해서도 또 자신을 위해서도 독이 된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도 그는 속이 짙 들어찬 앵커이다.

그는 신실함으로 아침을 여는 사람이다.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아침의 첫 전파를 여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추구합니다”

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현재의 일에 충실할 때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 노력한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모습은 거창하지 않다. 진솔하다. 그것은 그의 진솔한 삶의 방식이 보여 주는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다.

자신을 채찍질 해 주는 것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이다. 그 대화 속에서 지친 삶의 위안을 찾곤 한다. 물론 소주가 곁들여진다면 그 대화의 자리는 더할 나위 없이 푸근하고 행복할 것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덕목 부지런함이다.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타고난 자신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 또 부지런하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밑천이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되뇌인다. '나는 과연 부지런한가' 하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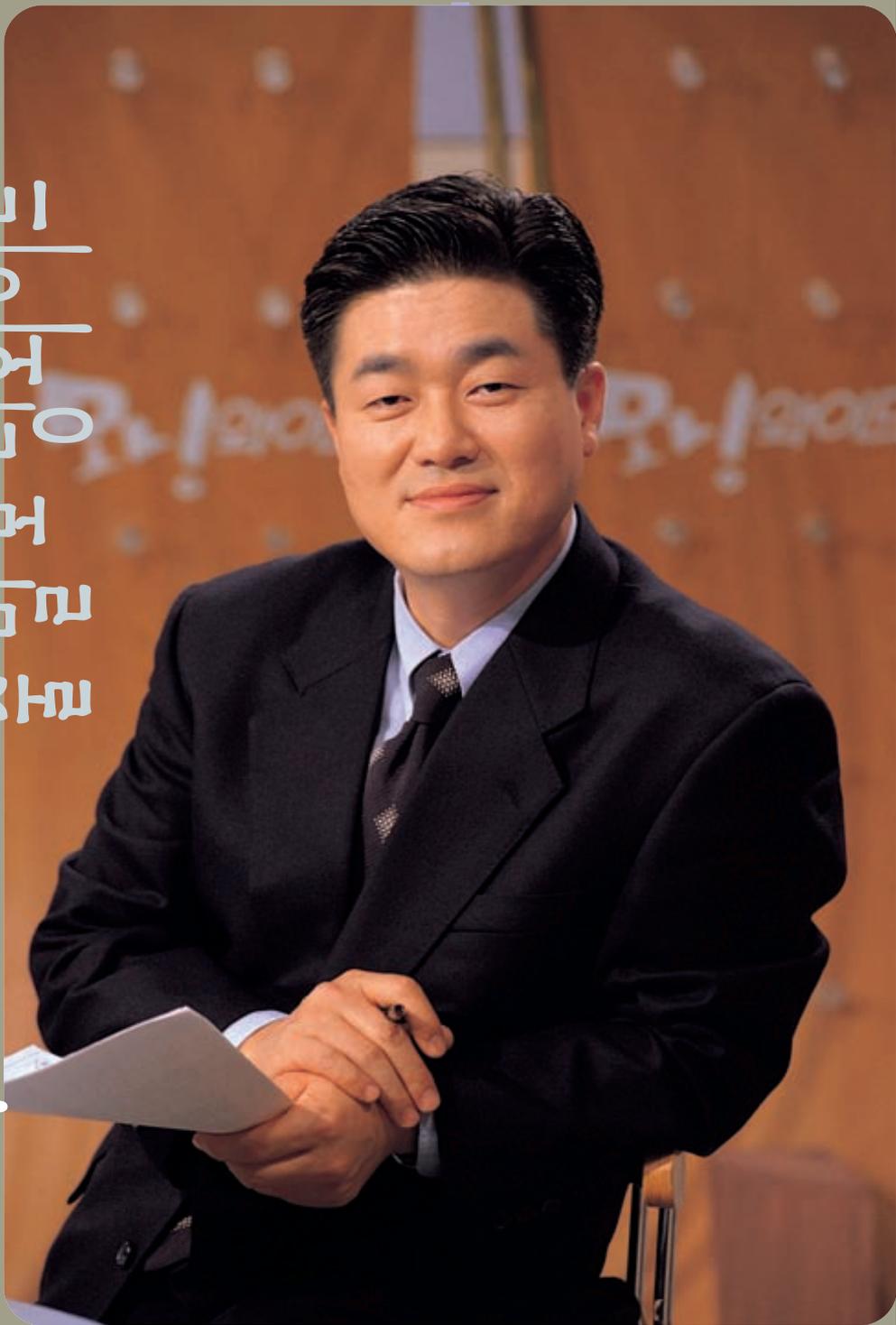
얻은 것 기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게 많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역사가 숨쉬는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회를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절대적인 재산이다.

희망 한때 '원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이상이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이 되어야 한다. '이 IMF 상황에서 지향해야 할 언론의 모습은 무얼까' 고민중에 있다. 그것이 1년 8개월 동안 비워 둔 자리에 다시 돌아온 이유다. **SBS**

글 / 김유석 · 자유기고가, 사진 / 서창식

리
아
와
이
드
모
닝
와
이드

이 창 섭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앵커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 앵커 이창섭의 일상은 'on air' 상태에 있다. 그는 자신과 주변의 현재를 예의 주시하며 그 '무한 책임'의 소명을 감내하려 노력한다. 침착하고 튀지 않으면서도 호감을 느끼게 한다는 주변사람들의 평가처럼 그는 늘 '정중동'의 자세를 지니려 애쓴다. 아마도 그것만이 그가 추구하는 언론인의 꿈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는 힘이 아닐까.

총체적 사회 모순을 고발하는 양심의 돋보기

「TV 돋보기 우리는 지금」

연출 / 황효선, 오우용, 이덕건, 홍수정

진행 / 손범규, 최명민, 이지희

10월 19일부터 월~금요일 저녁 8시 45분 방송



요즘 공무원 부패와 관련, 정부에서는 부패 공무원 척결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국가적 위기의 뿌리에 부패가 큰몫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패 시대 마감을 위한 총체적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SBS가 지난 10월 19일부터 저녁 프라임 타임에 국민 의식 개혁 프로그램인 「TV 돋보기 우리는 지금」을 마련하여 주변의 구태 의연한 관행과 모순점들을 짚어 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 국민의 부패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손범규, 최명민, 이지희, 세 사람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우리의 잘못된 고정 관념과 관행, 습관 등에 대해 리포터의 현장 취재와 국의 사례 등을 통해 문제와 해결책을 제시하며 르포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첫방송에서 '상납의 검은 고리를 끊자—공무원 비리의 온상, 행정 규제'를 내보낸 데 이어 '21

세기 국가 경쟁력, 벤처 기업에 달려 있다'를 방송했는가 하면 '밀려오는 일본 문화, 이제는 받아들이기 때다' 등 다양한 문제들에 설득력 있게 접근함으로써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앞으로도 '체면에 최면당하지 맙시다' '시민들의 작은 권리 찾기' '언제나 뜨거운 감자—교육 개혁', 'IMF에 피명든 기술·연구 부문 투자' '경제 살리기, 대기업이 나선다' 등 시청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들을 점검해 보고, 특히 금요일에는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사회 지도층 인사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달라져야 한다'를 방송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 나갈 예정이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태를 벗고 환골탈태하는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SBS**

사진 / 조광희



저녁 7시, SBS를 주목하십시오!

늦가을 저녁, 온 가족이 모인 화목한 자리. 이럴 때 세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충족시켜 줄 만한 대화 내용이 오간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가정을 찾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피하듯이 제각각의 방으로 들어가면 하루 일과는 그것으로 끝이다. 한 마디로 가족 전체가 함께 웃고 즐길 만한 문화 자체가 우리 현실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생각하며 이번 SBS 가을 개편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 가족을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저녁 7시라는 시간대에 마련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골격은 '사랑과 화합의 사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저녁 7시대에 편성된 점은 간과할 수 없는 SBS만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캠페인성 구호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는 대명제. 월요일의 「특명! 아빠의 도전」을 비롯해 화요일의 「비디오 출동 Q」, 수요일의 「머리가 좋아지는 TV」, 목요일의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금요일의 「감동! 아이 러브 아이」의 출발점도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빠! 힘 내세요 — 「특명! 아빠의 도전」

그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 온 「특명! 아빠의 도전」은 우리 시대 고개 숙인 가장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아버지와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도전에 성공한 아버지의 환희와 기뻐하는 가족들, 또는 도전에 실패했지만 자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콧등 시큰한 감동이 가을 개편과 더불어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10분 축소라는 외형적 변화 외에도 스튜디오의 한판 승부와 도전 부

분을 강화, 기존의 스피디한 진행에서 극적 구성을 강조한 것이 변화의 주요 포인트.

이 시간에 시청자들은 도전 가족의 일원이 되어 응원도 하고 한숨도 쉬고 안타까움에 탄식도 하면서 자신의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된다. ‘아, 내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는데 내게도 나의 아픔을 알아 주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구나’ 하며, 45분 동안 확인하게 되는 참으로 값진 마음의 보석에 늦가을의 쓸쓸한 기운은 오간 데가 없다.

머리 아픈 방송은 가라 — 「비디오 출동 Q」

퀴즈와 토크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끌고 있는 「비디오 출동 Q」(진행 남희석·박미선)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주변의 자잘한 것들,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패널들의 톡톡 튀는 유머와 퀴즈로 알아 보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을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토크 쇼나 퀴즈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르게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기발한 발상의 전환이라는 ‘삶의 유



우리 시대 고개 숙인 가장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시켜 주는 「특명! 아빠의 도전」(사진 위)은 가을 개편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톡톡 튀는 유머와 함께 사람들의 지식욕을 퀴즈로 해결해 가는 「비디오 출동 Q」(사진 아래)에는 시청자들의 삶의 유희를 충족시키는 유익하고 다양한 코너들이 마련돼 자연스럽게 시청자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토크 쇼나 퀴즈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다르게 시청자들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회’를 맛보게 된다.

각 고정 코너가 지니고 있는 색깔 역시 ‘구름 잡는 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긍정맨을 찾아라’를 살펴보자. 황당한 상황,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긍정적일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긍정적인 사고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모를 사람들이 없지만 막상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면 먼저 비판적인 생각부터 드는 것이 인지상정. 이 코너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긍정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 이 코너의 핵심이다.

그밖에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찾아 삶의 자세를 배워 보는 ‘대한민국 최고를 찾아라’, 최근 사회의 이슈와 주부들의 생활 방식 등 잘 모르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어 그래' 등도 웃고 즐기고 알아 가면서 시청자들을 스튜디오 안으로 유혹한다.

재미있게 골치를 앓아 보자—「머리가 좋아지는 TV」

한국 최초로 Edutainment 프로그램인 「머리가 좋아지는 TV」 역시 교육과 퀴즈라는 이질적인 분야를 접목시켰다. 제목에서부터 느낄 수 있지만 「머리가 좋아지는 TV」는 시청자의 지적 호기심을 짝짝 자극한다.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서 속의 문제와 생활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적인 실험, 논리적인 증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커다란 골격이다.

학교 교육에서 멀어진 기성 세대는 향수 비슷한 지적 호기심을, 10대들은 충동적 호기심을 자극받는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두 명의 MC 김승현, 정은아를 필두로 장안의 내로라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매회 출연, 그들 특유의 기지와 해학으로 보는 재미를 더한다. 특히 출연자들의 어린 시절 사진과 성적표, 인터넷으로 조사한 개인별 지지도 등이 공개돼 쓸쓸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구성도 학교의 수업 시간을 연상시키는 분위기로 이루어진다. 총 4교시에 걸쳐 개인별 과학 퀴즈와 개인별 IQ 테스트, 특별 수업인 분단별 퀴즈, 입체 영상으로 풀어 보는 개인별 퀴즈로 나뉜다. 내용은 생물, 물상, 지구 과학, 화학 등 과학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 보는 것에서부터 출연자

시청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국 최초의 Edutainment 프로그램인 「머리가 좋아지는 TV」는 교육과 퀴즈를 접목시킨 새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교 수업 시간을 연상시키는 진행 방식과 실험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과학 시간 등 퀴즈를 통해 문제를 풀다 보면 45분이란 시간이 짧게만 느껴진다.





쌓인 피로를 풀어 줄 만한 화끈한 일을 찾는 사람을 위해 목요일 저녁에 마련된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인간의 다양한 이면을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들의 추리력, 연상력, 상상력, 분석력, 수학적 지식을 총 동원해 풀어 보아야 하는 두뇌 개발력 퀴즈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출연자들과 함께 문제를 풀다 보면 4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지경으로 시청자들을 몰입시킨다.

아니! 이렇게 황당할 수가 —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목요일. 한 주일의 피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날, 이런 날에는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를 봐야 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기막힌 일, 신기한 일을 담아 내는 이 프로그램은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순간, 생생한 현장의 세계로 달려가는 기동성을 자랑한다. 실제 화면으로 리얼리티를 극대화한 것이 여타의 재연 프로그램과는 다른 차별성. 인간사의 다양한 이면들을 맛깔나는 멘트로 이끌어 가는 임성훈과 박소현, 뛰어난 유희와 유머를 자랑하는 개그우먼 이성미와 만화가 박광수를 중심으로 한 패널들의 적절한 코멘트 등이 어우러져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더 빛을 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살이의 다양성, 예외성 등을 은연중에 보여 준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며,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미쳤다는 말로 폄하해 버리는 시대적 풍조에 대해 소리나지 않게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 줌으로써 상대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비밀의 정원에 들어서는 환희 — 「감동! 아이 러브 아이」

금요일 저녁의 「감동! 아이 러브 아이」도 우리가 잃어 버린 것,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시작된다. 경이로움과 기쁨을 주는 아기들의 성장 과정을 경기 형식으로 보여주는 「베이비 올림픽」, 상식의 허를 찌르는 놀라운 능력과 아이들만이 지니고 있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아이는 초능력」 등 다채로운 코너들은 우리에게 엄연한 인격체로 존재하는 아기에 대한 사랑과 이해를 높여 준다.

교육도 정보도 없지만 보고 나면 가슴 한 구석이 절로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 노골적이지 않지만 저절로 느끼게 하는 것, 그런 아이들의 꾸밈없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 보면서 세상의 먼지가 더چه처럼 내려앉은 마음이 어느덧 정갈하게 순화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일상에 찌든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감동! 아이 러브 아이」. 꾸밈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잃어 버린 것과 회복할 것이 무엇 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코믹 만찬으로의 초대 — 「나 어때」

새로운 시트콤 「나 어때」는 그 제목만큼이나 당돌하고 유쾌하게, 기성 세대와 그리고 당사자들인 10대들에게 동질성과 정체성을 물어 온다. 10대만의 독특한 정서와 언어들을 백안시하는 기성 세대에게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수용을 슬그머니 촉구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의 모습을 한 번쯤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시트콤 「나 어때」의 밑그림이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6시 45분에 전파를 타는 시트콤 「나 어때」는 청소년 문화를 테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언뜻 청소년만을 주 시청자층으로 여길 확률이 높지만 내용은 그계 아니다. 신세대와 원세대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복선처럼 깔려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생활 속의 유머로 공감대를, 학부모에게는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의 장이 바로 시트콤 「나 어때」인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텅빈 공간을 위하여

SBS의 이번 새 단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모험이기도 하다. 특정층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자칫 고유의 활력과 색깔을 창출해 내기가 어렵다. 제작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단히 주목할 만한 시도인 것 역시 분명하다. 가족과 가족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상실해 가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도 계층 간의, 세대 간의 화합을 도모해야만 한다.

거듭되는 국가적 재난에 지친 국민들을 위무해 주기 위한 소담한 노력을 SBS가 먼저 시작했다. 풍성한 가을과 더불어, SBS

초저녁인 6시대에 청소년 문화를 테마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송되는 「나 어때」는 신세대와 원세대를 아우르는 시트콤이다. 특히 기성 세대에게는 10대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요, 청소년들에게는 자신들의 모습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라 더 뜻 깊다.

일반 고교 학생과 달리 개성 강한 예술고 학생들의 자유로우면서도 책임있는 학교 생활을 통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같이 공감하며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게기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나 어때」의 존재 이유다.

글 / 김승미 · 자유기고가, 사진/ 김연식







1



2



3



4

'98 슈퍼 엘리트 모델
꿈꾸는 자들의
아름다운 비상,
그 설레임



5



6



7



8

❶ 한지영(3위)

생년월일: 78년 12월 16일 / 최종 학력: 건양 대학교 일어
일본학과 재학중 / 신체 사이즈: 178.3cm, 57kg, 33-26-
37인치 / 매력 포인트: 청순함과 깨끗한 이미지

❷ 박근옥(베스트 네티즌)

생년월일: 76년 10월 24일 / 최종 학력: 안양 전문 대학교
산업 디자인과 재학중 / 타 분야 경력: 케이블 TV 리포터
/ 신체 사이즈: 169.5cm, 51kg, 32-26-37인치 / 매력 포
인트: 귀여운 이미지

❸ 오세정(베스트 메이크업상)

생년월일: 78년 6월 14일 / 최종 학력: 이화 여대 독일어
과 휴학중 / 신체 사이즈: 178cm, 56kg, 34-25-38인치 /
매력 포인트: 부드러움과 지적인 분위기

❹ 안소라(베스트 건강 미인상)

생년월일: 79년 10월 5일 / 최종 학력: 동아 방송 대학교
방송 연예과 재학중 / 신체 사이즈: 173.5cm, 53kg, 32-
24-36인치 / 매력 포인트: 청순함 속에 우러나오는 섹시함

❺ 김희현 (우정상)

생년월일: 74년 12월 16일 / 최종 학력: 세종 대학교 무용
과 재학중 / 신체 사이즈: 174cm, 54kg, 32-24-36인치 /
매력 포인트: 여성스러움과 강한 자기 표현력

❻ 류은화(베스트 드레서상)

생년월일: 81년 7월 14일 / 최종 학력: 경기 심석고 재학
중 / 경력: 잡지 화보 / 신체 사이즈: 178.3cm, 56kg, 33-
25-37인치 / 매력 포인트: 매니쉬(mannish)한 매력

❼ 백소영(2위)

생년월일: 82년 6월 25일 / 최종 학력: 정신여고 재학중
/ 신체 사이즈: 177cm, 57kg, 31-24-37인치 / 매력 포인
트: 귀엽고 톡톡 튀는 이미지

❶ 이윤미(베스트 모델트상)

생년월일: 81년 9월 25일 / 최종 학력: 영파 여고 재학중
/ 수상 경력: '96신경스마트모델대회 은상' '97 영모델선발
대회 (신세계) 대상 / 신체 사이즈: 176.3cm, 50kg, 31-
25-37인치 / 매력 포인트: 밝은 표정과 통통 튀는 이미지

❷ 박동선(1위)

생년월일: 74년 12월 13일 / 최종 학력: 경남 대학교 불
어 불문학과 졸업 / 신체 사이즈: 177.3cm, 55kg, 33-25-
37인치 / 매력 포인트: 강한 눈빛과 지적이고 엘레강스한
분위기





1 청취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SBS 명동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 서울의 자존심, 명동에 오면 좋은 일이 생긴다

퀴즈 하나, 인기 가수들이 방송사의 텔레비전 대기실에 더 많이 있을까? 라디오 대기실에 더 많이 있을까? 정답은 단연 라디오 대기실이다. 그 이유는 주로 심야 시간대의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가수와 연예인들이 매일 라디오 대기실에 들르기 때문이다. 반면에 TV는 주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쇼나 오락 프로에 편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예인들의 출입 빈도가 라디오보다는 적다.

매일같이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매회 출연하는 많은 연예인들을 일반인들이 직접 볼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몇 초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려고 몇 시간씩 방송사 정문 밖에서 기다리는 열성적인 팬들을 볼 때마다 방송사를 오

픈해서 TV처럼 방청객으로 참여시키지는 않더라도 인기 연예인들이 방송하는 모습을 구경만이라도 하게 해 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을 방송국에 무작위로 들여보낼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시·청취자 최우선주의를 표방하는 SBS는 이런 청취자들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과감히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명동에서 문을 연 <SBS 명동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가 바로 그것이다.

명동 오픈 스튜디오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세요

오래 전 라디오 방송의 오픈 스튜디오가 유행한 적이 있었다.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DJ 박스처럼 유리창으로 스튜디오를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방송 현장을 구경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21세기를 앞둔 시기에 그런 형태를 답습할 수는 없는 법. 과감히 스튜디오 전체의 공간을 오픈, 청취자들이 자연스럽게 방청할 수 있게 했고, 무대의 세트나 소파 같은 소품, 조명 등도 디자인과 품질에 만전을 기해 오히려 TV 쇼보다 더 화려하게 꾸몄다.

청취자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의 자리, 열린 마당

이렇게 만들어진 명동 중심지 한가운데 마련된 <SBS 명동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는 현재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파워 FM의 인기 프로그램인 「이지훈의 영스트리트」와 금요일 저녁 7시 AM의 청소년 대상 대표 프로그램인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이 현장에서 방송된다. H.O.T, 젝스키스, 핑클 등 10대들의 우상으로부터 한동준, 유익중, 김장훈 등 20·30대가 선호하는 많은 가수들이 매주 출연, 청취자들과 함께 호흡하며 같이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이 가지는 자유스러움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출연자와 청취자들의 원활한 의사 소통을 통해 TV 쇼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오픈 스튜디오에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곧 무료 입장이다. TV 쇼를 보기 위해 미리 얻어야 하는 방청권도 오픈 스튜디오에는 없다. 그냥 시간 맞춰 나오면 된다. 단, 방청객 수가 장소 관계상 약 200명 정도로 제한되므로 조금 부지런할 필요는 있다.

이제 가을도 깊어 가고 눈 내리는 겨울 밤이 다가오면, 연인의 손을 잡고 마치 대학로의 소극장 콘서트를 즐기듯 <SBS 명동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에서 작은 콘서트를 함께 호흡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SBS**

우리 일상 생활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나의 배경으로 자리하는 라디오.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떻게 생겼을까, 방송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궁금하지만 스튜디오 안의 세계를 엿볼 길이 없다. 이제 SBS가 청취자들의 궁금증에 부응하여 명동에 SBS 라디오 오픈 스튜디오를 개장, 청취자들과 함께 호흡한다.



글 / 구경모 ·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프로듀서, 사진 / 조광희

매주 방송 시간과 출연진에 대한 문의 : SBS 라디오국 (02)369-1922, 1942

② 「선데이 파워 BGM」의 일인 다역의 세 프로듀서 특급 작전 ‘라디오 일병 구하기’

라디오 역사에서 ‘일병’ 정도의 전투
경력에 불과한 SBS가 요즘 사활을
건 전쟁터에서 ‘라디오 일병 구
출 작전’을 펼쳐 청취자들의
기쁨을 배가시키고 있다.

“고향 집 앞 마당에도
누님처럼 생긴 국화꽃
이 피었고, 산에는 어
린 아기 손처럼 작고
어여쁜 단풍잎을 피
우는 가을이 깊어 가
고 있는 휴일 오후입
니다.”

1998년 10월 18일
일요일 오후 2시 SBS
POWER FM의 가을 개
편에 새로 신설한 「선데
이 파워 BGM」의 DJ 박동
주 FM CP의 오프닝 멘트의
첫 구절이다. 「선데이 파워
BGM」은 POWER FM 개국 당시 캐
치 플레이즈로 내건 ‘말은 적게 음악은 많
이(less talk more music)’의 실현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청취자와의 약속을 지킨다는 점에서, 그보다
도 특히 CP를 포함, 세 명의 프로듀서가 직접 선곡에서
진행, 연출까지 1인 3역을 소화, 침체에 빠진 라디오를
구출한다는 점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추석 연휴에 실로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영화를 보고 평생의 원이었던 영

화 감독의 꿈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2
차 세계 대전을 다룬 영화로서 아
마 이를 능가할 작품이 만들어
지리라곤 차마 생각할 수 없
었다. 초반 20여 분 동안의
해안 상륙 작전과 후반
대전투 직전에 흐르는
에디트 빼아쁘의 흐느
끼듯 애절한 노래, 그
리고 그 이후 벌어지
는 전투신, 이 장면들
의 절묘한 조화에 ‘스
필버그는 위대했다’
라는 말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다. 물론
이 영화가 ‘역사는 승자
의 입장에서 승자만이 역
사를 당당하게 기록할 특권
을 누린다’는 진실(?)을 깨닫
게 하곤 있지만.

지금은 IMF 시대, 아시아는 물
론 전 세계가 경제 전쟁에 돌입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1999년 1월 1일, 표준
FM 개국’을 앞두고 있다. ‘1035 고지’를 확보하고 새
로운 ‘라디오 대전쟁’에 앞서 그 첫 전투로 AM에서도
「SBS 대행진」으로 주말을 특화했고, 「SBS 투나잇 쇼」
라는 새로운 전술을 개발, 공략하고 있다.

POWER FM에서는 우선 소강 상태에 빠진 전투, 평
화 아닌 평화에 안주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우



SBS POWER FM 가을 개편과 함께 신설한 「선데이 파워 BGM」의 DJ 삼인방이 뒀다. 박동주 FM CP를 포함, 세 명의 프로듀서로 구성된 이들은 직접 선곡에서 진행, 연출까지 1인 3역을 소화하며 DJ적 끼를 유감 없이 발휘, 표준 FM 개국을 앞두고 변화하는 시대의 변화하는 프로듀서 상을 보여 주며 동료 프로듀서들은 물론 청취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중대장이 직접 바주카 포를 들고 전차 공격에 나섰다. 두 명의 대원을 이끌고, 「선데이 파워 BGM」을 이끄는 삼인방, 중대장 박동주 FM CP와 특공대원 정태익·고민석 프로듀서가 그 주인공이다.

SBS POWER FM의 푸른 희망으로 떠오른 DJ 삼인방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정태익 프로듀서는 팝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재담이 뛰어난 재주꾼이다. 빌보드 차트를 꿰고 있고, 올드 팝에서 모던 팝, 하드 록, 프로그램 시브 록에 이르기까지 그의 팝에 대한 이해의 폭은 광범위하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특히 NBA 농구라면 선수의 이력은 물론 그들의 속내까지 손금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

고민석 프로듀서 또한 정태익 프로듀서에 대적할 만만찮은 존재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는 학창 시절 그룹을 조직, 기타리스트 겸 리드 싱어로 활약한 타고난 DDR 끼를 가진 혈기 방장한 청년이다. 마이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생방송 DJ로서 그 역할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 야심 만만한 사나이이기도 하다.

여기에 팀장 박동주 CP는 기자 출신의 입담 구수한 만능 엔터테이너다. 『고추잠자리 길들이기』란 개그집을 펴낸 작가이기도 한 그는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에서 H.O.T에 이르기까지 가요에 관한 한 달견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IMF 시대,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프로듀서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스스로 일요일을 반납하고 최일선에 나선, 밀러 대위 같은 휴머니스트요, 책임감 강한 지휘자다. 그는 이름 그대로 명실 상부한 DJ(동주)임을 자부하고 있다.

필자는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다.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프로듀서들의 변하고 있는 모습, '해내고 말겠다'는 그들의 얼굴에서 나는 푸른 희망을 읽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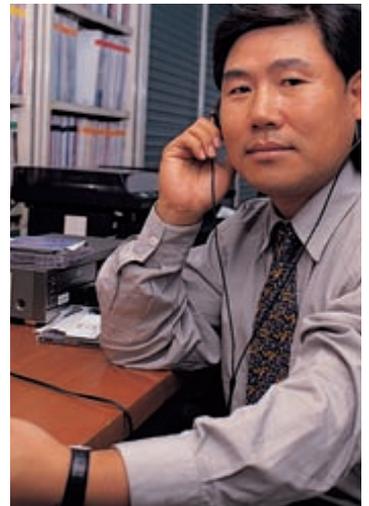
SBS 라디오는 103.5MHZ 표준 FM 개국을 앞두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IMF라는 20세기 최후의 경제 전쟁, 그 절정의 시기에 표준 FM 개국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심장하다. 어제까지 우리는 AM이라는 낡은 소총을 가지고 첨단 병기로 무장한 적들과 싸워 왔다. 이번 개편을 통하여 표준 FM 시대를 여는 제2 개국을 맞게 되지만 또 한편 20세기 마지막 라디오 청취율 쟁탈 전쟁에 돌입한다.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SBS 라디오의 역사는 다르게 기술될 것이다. 모든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쓰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새기며, 특급 작전 박동주 CP의 라디오 일병 구하기의 성공을 빌어 본다. **SBS**



정태익 프로듀서



고민석 프로듀서



박동주 CP

글 / 박건삼 · 라디오 국장, 사진 / 조광희

여유로운 아침, 재미와 감동이 함께하는 가족 오락 프로그램

「좋은 친구들」을 보고

SBS

일요일 아침 모처럼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느긋하게 아침 시간을 보내는 내게 SBS 「좋은 친구들」은 그야말로 좋은 친구가 되어 준다. 주말 시간대를 채우고 있는 많은 오락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요일 오전의 여유로움을 웃음으로 채워 주는 프로그램은 참 드문 형편이기 때문이다. 조금은 늦은 아침을 들고 가족 모두 거실에 둘러앉아 기분 좋게 한 시간을 웃고 나면 지난 며칠 간의 피곤이 어느새 가뿐히 녹아드는 기분이 든다.

무엇보다도 너무 요란스럽지 않은 진행 방식에 십대 위주의 왁자지껄한 들쭉임이 어느 정도 자제된 분위기여서 나이든 세대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점이 내게는 어떤 안도감을 주기도 한다. 물론 게스트로 출연하는 가수나 텔런트의 얼굴이 종종 생소하기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런 낯설음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젊음과 서툰 마음에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특히 나보다도 가족 모두가 가장 즐겨 보는 비교 체험극과 극 코너는 젊은 출연자들의 발랄함이 유감 없이 발휘되는 순간이다. 비록 최저의 비용

으로 도전하는 많은 모험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젊은이들의 패기를 느낄 수 있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시청자에게도 오히려 더 큰 재미를 선사하는 것이 아닐까. 상식적인 눈으로 본다면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물건에 당연히 마음이 쏠리게 마련이지만, 이 코너가 정말 극으로 쏠리지 않게 하는 균형의 묘미를 젊은 출연진과 남희석이 잘 이끌어 주고 있다.

더구나 나날이 능청스러워지는 남희석의 재치는 「좋은 친구들」을 한층 재미있게 만드는 양념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칭찬하고 싶다.

또한 노력해서 사랑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사랑학 개론', 그리고 풋풋한 젊은 커플들의 이야기자기한 사랑을 풀어가는 '벽을 넘어서' 코너도 나름대로의 주제를 담고 있어 재미를 더한다. 다만 사랑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가벼움의 경솔함을 어떻게 보완, 유지하느냐는 문제만 주의한다면, 재미와 감동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종익(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이 담긴 방송

SBS 라디오 AM 「강부자 · 노영환입니다」를 듣고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사연을 가지고 산다. 행복한 삶, 눈물겨운 인생 역정, 너무나도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사람은 모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듣기를 좋아한다. 바로 이러한 삶의 감동과 행복이 함께 묻어가는 프로그램이 바로 SBS 라디오

「안녕하세요, 강부자 · 노영환입니다」이다. 마치 이 시대의 어머니 같은 인자하고 넉넉한 강부자와 털털하고 구수한 노영환의 화음이 참으로 멋진 조화를 이룬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사연들에는 모든 이들의 회노애락과 삶의 애

환이 있어 더 큰 감동을 준다.

특히 어려서 많은 시련 속에서 자란 나는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한 인생살이 이야기를 좋아한다. 때론 감동적인 인생 역정이 펼쳐지는 진솔한 사연을 듣노라면 동병상련과 함께 찡한 가슴저림을 느낀다. 그러한 사연을 들으

면서 사람을 느끼고, 삶의 희망과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무엇보다 역경을 극복하고 우뚝 선 사람들의 체협담은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힘을 주기에 충분하다.

방송의 역할은 즐겁고, 훈훈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내용과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랑이 담긴 방송이어야 한다.

바로 이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

앞으로도 「안녕하세요, 강부자·노영환입니다」에서는 난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곳곳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많이 방송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대성(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한산리)

고향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하는 정겨운 프로그램

SBS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를 보고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나는 몇 년 전까지만도 SBS를 볼 수 없었다. 제주도에서는 방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2년 전 케이블 TV에 가입하면서부터는 언제나 SBS를 즐겨 볼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어느 프로그램보다도 SBS

의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를 가장 즐겨 보는 편이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나와서 더 정겹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7일에는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고향에서 온 편지' 제주도편을 방송해 더 큰 공감과 함께 생생한 감동을 맛보았다.

사라져 가는 사투리를 구수하게 구사하는 제주의 건강한 할머니들, 맑고 푸른 제주의 바다를 배경으로 물질하는 해녀들, 늘 이웃에서 볼 수 있는 할머니들이지만 막상 텔레비전을 통해 보니 더욱 새롭고 정겨웠다. 그리고 스튜디오에 제주 고유의 의상인 갈옷을 입고 제주 방언을 쓰며 재치 있는 입담을 펼치는 모습, 항상 부지런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온 탓인지, 칠순의 나이에도 건강함을 유지하는 모습은 단연 돋보였다.

또한 다른 날과 달리 해녀인 할머니가 63빌딩 수족관에서 소라에게 먹이를 주고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여 준 점은 참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오랜만에 제주의 할머니들이 나와 퀴즈도 풀고 제주의 특산품도 홍보하는 모습을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없어 무척 아쉬웠다. 제주의 경우 아직도 케이블 가입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SBS가 전국방송이 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철훈(제주도 북군 애월읍 유수암리)



언제나 기쁨 주고 사랑받는 SBS 서울방송이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SBS 매거진」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SBS TV와 라디오를 시·청취하면서 느낀 점이나 방송 전반에 관한 의견, SBS에 바라는 의견, 또는 「SBS 매거진」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200자 원고지 4장 내외로 적어 보내 주십시오. 채택된 글은 「SBS 매거진」에 실리게 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보내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을 보내 주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연락처와 전화 번호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마감은 매달 15일까지입니다.

보내실 곳 : 우편 번호 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0-2 서울방송 홍보부 「SBS 매거진」 담당자 앞

SBS TV



Channel 6

1998년 11월 9일 시행

MON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포옹
- 9:00 SBS 드라마 특선
산다는 것은
- 9:45 한선교의 좋은 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PM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15 특급! 연예통신
- 5:35 우리는 챔피언
- 6:15 슬램덩크
- 6:45 나 어때!
- 7:15 특명! 아빠의 도전
- 8:00 SBS 8 뉴스
- 8:45 TV 돌보기 우리는 지금
- 8:55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
-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 드라마 은실이
- 10:55 추적! 사건과 사람들

AM

- 00:00 스포츠가 좋아요
- 00:15 SBS 나이트라인

TUE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포옹
- 9:00 SBS 드라마 특선
산다는 것은
- 9:45 한선교의 좋은 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PM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15 특급! 연예통신
- 5:35 우리는 챔피언
- 6:15 슬램덩크
- 6:45 나 어때!
- 7:15 비디오 출동 Q
- 8:00 SBS 8 뉴스
- 8:45 TV 돌보기 우리는 지금
- 8:55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
-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월화 드라마 은실이
- 10:55 제3 취재본부

AM

- 00:00 스포츠가 좋아요
- 00:15 SBS 나이트라인

WED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포옹
- 9:00 SBS 드라마 특선
산다는 것은
- 9:45 한선교의 좋은 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PM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15 특급! 연예통신
- 5:35 우주의 기사 테카맨
- 6:15 에스카 플로네
- 6:45 나 어때!
- 7:15 머리가 좋아지는 TV
- 8:00 SBS 8 뉴스
- 8:45 TV 돌보기 우리는 지금
- 8:55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
-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드라마 스페셜 승부사
- 10:55 김해수 플러스 유

AM

- 00:00 스포츠가 좋아요
- 00:15 SBS 나이트라인

가을 감성에 호소하는 감미로운 선율

SBS 특별기획 「백야 3.98」 음반 출시

이국적인 러시아를 배경으로 젊은이들의 불꽃 같은 인생을 그린 「백야 3.98」의 주옥 같은 선율이 CD로 출시됐다.

드라마 「모래 시계」 음악을 담당, 호평을 받았던 드라마 음악의 대가, 최경식의 곡에 런던 로얄 필하모니의 아름다운 연주가 돋보이는 이번 음반에는 주제곡 「이별의 자리」를 비롯하여 「메인 타이틀」 「백만 송이 장미」 등 총 18곡이 수록되어 있다.

주제곡 「이별의 자리」는 그리스의 대표

적인 민요 'to tr' eno fe' vgi stis okto'」를 우리 감성에 맞게 변안한 곡으로 우수 어린 선율은 가을 문턱에서 시적인 감성을 자아내며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게 하는 등 깊어가는 가을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가을 음악으로 안성맞춤이다.

특히 주제곡을 부른 정유희는 연세대 음악 대학 성악과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한 재원으로 서울 시립 가무단에서 주연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KBS 어린이 만화 영화 「로미오」 주제가를 부르고, 월트 디즈니 만화 영화 「헤라클레스」 작품에도 참여한 바 있다.



THU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포옹
- 9:00 SBS 드라마 특선
산다는 것은
- 9:45 한선교의 좋은 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PM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15 특급! 연예통신
- 5:35 우주의 기사 테카맨
- 6:15 에스카 플로네
- 6:45 나 어때!
- 7:1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8:00 SBS 8 뉴스
- 8:45 TV 돌보기 우리는 지금
- 8:55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
-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드라마 스페셜 승부사
-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 00:00 스포츠가 좋아요
- 00:15 SBS 나이트라인

FRI

AM

- 6:0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포옹
- 9:00 SBS 드라마 특선
산다는 것은
- 9:45 한선교의 좋은 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PM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15 특급! 연예통신
- 5:35 SBS 금요 만화스페셜
- 6:15 스피드왕 번개
- 6:45 나 어때!
- 7:15 감동! 아이 러브 아이
- 8:00 SBS 8 뉴스
- 8:45 TV 돌보기 우리는 지금
- 8:55 일일연속극 미우나 고우나
- 9:25 일일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 9:55 기분 좋은 밤
- 10:55 영화특급

AM

- 00:30 스포츠가 좋아요
- 00:45 SBS 나이트라인

SAT

AM

- 6:00 토요일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포옹
- 9:00 SBS 드라마 특선
산다는 것은
- 9:45 생방송 행복찾기(1부)
-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PM

- 12:00 SBS 뉴스
- 12:10 토요일 무비스페셜
- 2:5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 4:00 SBS 뉴스
- 4:10 SBS 프로 농구
- 6:00 기쁜 우리 토요일
- 7:00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
- 8:00 SBS 8 뉴스
- 8:35 스포츠가 좋아요
- 8:50 주말극장 흐린 날에 쓴 편지
- 9:50 토요일 미스터리극장
- 10:50 주병진 데이트라인
- 11:50 SBS 골프

AM

- 00:50 SBS 나이트라인

SUN

AM

- 6:00 일요특집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4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2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05 김동길의 선데이 매거진
- 8:55 만화잔치
- 9:40 LA 아리랑
- 10:50 좋은 친구들

PM

- 12:00 SBS 뉴스
- 12:10 최고의 밥상
-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 5:00 SBS 뉴스
- 5:10 SBS 인기가요
- 6:00 황수관의 호기심 천국
- 7:00 그것이 알고 싶다
- 8:00 SBS 8 뉴스
- 8:35 스포츠가 좋아요
- 8:50 주말극장 흐린 날에 쓴 편지
- 9:50 일요드라마 파트너
- 10:50 주병진 데이트라인
- 11:50 메디컬 드라마 ER

AM

- 00:50 SBS 나이트라인

**아기가 아기를 돌보는 신개념 비디오
'또래또래 아기 세상'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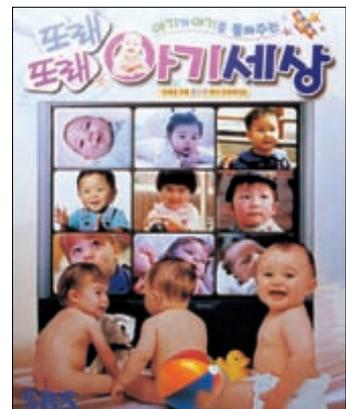
SBS 프로덕션은 0~3세 영아를 위한 비디오 '또래또래 아기 세상' 출시했다.

이 비디오는 국내 영아들의 다양한 얼굴 표정과 행동을 흥미있게 구성하여, 또래 아이들과 조화롭게 동화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넓혀 정서 발달과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곧 '아기들에게는 아기들만의 또다른 세상이 있고, 아기들의 가장 큰 호기심 중 하나는 또래 친구들이다'는 점에 착안

하여, 아기가 아기를 돌본다는 개념으로 제작된 비디오다.

우리 아기들의 '건강하고 해맑은 미소'와 '귀엽고 사랑스럽게 우는 모습' 등 진짜 아기들만의 세상이 특별히 선곡된 음악과 함께 담겨져 있어 영아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몰두하고 흥미를 느끼는 가운데 사회성을 키울 수 있어 육아, 부모들에게 색다른 만족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비디오는 연세대 의대 황수관 박사의 추천을 받은 비디오이기도 하다.

**가격 : 2만 5,000원(1셋트당)
구입 문의 : 02-369-8383)**



SBS AM



월~토요일

▶09:00~17:00 매시 정각, 30분에 뉴스
▶22:00~24:00 매시 정각, 30분에 뉴스

일요일

▶08:00~24:00 매시 정각에 뉴스

MON~FRI

AM

- 5:00 뉴스
- 5:05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와 기상정보
- 6:10 김종찬의 서울 전망대 1·2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김종찬의 서울 전망대 3·4부
- 7:50 배병휴의 경제레이다
- 8:00 SBS 뉴스쇼
- 8:40 황수관의 신바람 건강
- 8:55 공항정보
- 9:05 안녕하세요 강부자·노영환입니다
- 10:35 SBS 건강 상담실
- 11:05 라디오 칼럼
- 11:30 낮 종합뉴스

PM

- 12:00 생방송 792 뉴스대행진 1·2부
- 2:00 SBS 뉴스라인
- 2:20 생방송 792 뉴스대행진 3·4부
- 4:05 생방송 792 뉴스대행진 5·6부
- 6:00 저녁 종합뉴스
- 6:30 안녕하십니까? 이상춘·최영주입니다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생방송 SBS 투나잇 쇼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성시완의 0시 리퀘스트
- 2:00 전영혁의 음악여행
- 3:00 송도영의 사랑의 테마
- 4: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SAT

AM

- 5:00 뉴스
- 5:05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와 기상정보
- 6:10 김종찬의 서울 전망대 1·2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김종찬의 서울 전망대 3·4부
- 7:50 배병휴의 경제레이다
- 8:00 SBS 뉴스쇼
- 8:40 황수관의 신바람 건강
- 8:55 공항정보
- 9:05 안녕하세요 강부자·노영환입니다
- 10:30 SBS 건강 상담실
- 11:05 라디오 칼럼
- 11:30 낮 종합뉴스

PM

- 12:00 10시간 생방송 SBS 대행진
토요 매거진 1·2·3부
- 3:05 토요 매거진 4·5·6부
- 6:00 토요 매거진 7·8부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토요 매거진 9·10부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성시완의 0시 리퀘스트
- 2:00 전영혁의 음악여행
- 3:00 송도영의 사랑의 테마
- 4: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SUN

AM

- 5:00 뉴스
- 5:05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시인의 마을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금주의 베스트셀러
- 7:50 배병휴의 경제레이다
- 8:05 한비아의 세계 풍물 기행
- 9:05 일요 토크쇼 민창기의 멋진 인생
- 10:05 조경철의 자동차 25시

PM

- 12:05 10시간 생방송 SBS 대행진
일요음악여행 1·2·3부
- 3:05 일요음악여행 4·5·6부
- 6:05 일요음악여행 7·8부
- 8:00 SBS 8 뉴스
- 8:30 일요음악여행 9·10부
- 10:05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김홍택의 재즈 스테이션
- 2:00 전영혁의 음악여행
- 3:00 송도영의 사랑의 테마
- 4: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AM 792 KHz HLSQ

1998년 11월 1일 현재

SBS 라디오, 재미있는 청취자 참여 코너들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그대 곁에 채시랍니다」 청취자 참여 방법 소개

SBS AM 「류시원의 기쁜 우리 젊은 날」

- 월요일, H.O.T의 특급작전, 멋쟁이를 찾아라! 청취해 주고픈 사람을 소개하고 그 사람과 전화로 연결,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 화요일, 핑클의 'Neverending Story' 청취자가 전화로 미니 시리즈의 내용을 보내면 핑클 멤버와 류시원이 직접 연기하는 코너.
- 수요일, 터보의 '스피드 특급'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스피드하게 맞추는 코너.

- 목요일, 1·2부 잭키의 '여섯 고개 넘기' 스무 고개 형식의 질문에 청취자들이 전화로 정답을 맞추는 코너.
- 목요일, 3·4부 NRG의 '목요일 미스터리 극장' 미스터리 극을 통해 풀어 보는 퀴즈 코너.
- 금요일, 양현석의 'HIP-HOP NATION' 양현석이 시청자들의 힙합에 대한 궁금증을 풀

어 주는 코너.

- 토요일, 우리들만의 베스트 고교생들이 직접 참여해 신세대를 말하는 코너.
- 청취자 참여 방법
전화 : 786-3181~5(방송중에만 가능)
팩스 : 369-2699
인터넷 : www.sbs.co.kr
통신 : 천리안, 나무누리, 하이텔, 유니텔, 신비로 go pleasure, 넷츠고는 01410 접속후 sbs 주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650호 (〒150-606)

MON~SAT

AM

- 5:00 아침이 오는 소리
- 6:00 FM 모닝와이드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11:00 송승환의 팝스 1077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변정수의 잇! 2시다
- 4:00 이현우의 뮤직토포아
- 6:00 이성미의 스트레스 제로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그대 곁에 채시라입니다

AM

- 00:00 성시완의 0시의 리퀘스트
- 2:00 전영혁의 음악여행
- 3:00 송도영의 사랑의 테마
- 4: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SUN

AM

- 5:00 아침이 오는 소리
- 6:00 FM 모닝와이드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미숙입니다
- 11:00 송승환의 팝스 1077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선데이 파워 BGM
- 6:00 이성미의 스트레스 제로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그대 곁에 채시라입니다

AM

- 00:00 김홍탁의 재즈 스테이션
- 2:00 전영혁의 음악여행
- 3:00 송도영의 사랑의 테마
- 4: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POWER
FM
SBS

FM 107.7 MHz HLSQ

1998년 11월 9일 시행

SBS FM 「그대 곁에 채시라입니다」

- 월요일, '체험, 좌충우돌'
하나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엮서, 팩스를 통해 받고, 6~7통의 전화를 연결, 청취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 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청취자가 보내 온 생활 속의 에피소드, 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 퐁트 등을 소개하는 코너.
- 수요일, '시라와 사람들'
요즘 한창 잘 나가는 인기 스타를 스튜디오에 초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벗겨 나간다. 청

- 취자들은 초대 스타에게 팩스로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고 초대 스타는 이에 답하는 시간.
- 목요일, '아무거나 나만의 BEST'
주마다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나만의 차트를 꾸며 보는 코너.
- 금요일, '사랑에 관한 짧은 기억'
엽서, 팩스, 통신에 올린 사랑에 관한 짧은 기억을 소개하는 코너.
- 토요일, '노래가 있는 만남'
출연한 신인 가수에게 팩스로 궁금증을 질문하는 코너.

- 일요일, '친구, 널 위해 준비했어'
엽서, 팩스, 통신에 올린 친구에 관한 글을 소개하는 코너.
- 청취자 참여 방법
전화 : 368-1700(방송중에만 가능)
팩스 : 769-1077.1088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650호 (T150-606)



신세대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 선보인

열띤 무대

『98 GENERATION NEXT SBS 신세대 가요제』



영예의 대상, 남성 3인조 그룹 ANTHEM이 수상

지난 10월 25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린 『98 GENERATION NEXT SBS 신세대 가요제』 대상은 '너를 보내며'를 노래한 R&B 남성 3인조 그룹 ANTHEM(유나얼, 성민, 김진석, 박영석)이 차지했다. 국내 가요제 최고의 상금인 1,000만 원과 트로피를 받은 이 팀은 앞으로 방송, 광고 및 다양한 연예 활동에 지속적인 매니지먼트를 보장받게 되었다.

신 청소년 현장 선포식 가져

SBS가 한국웹시쿨라와 함께 주최한 이날 가요제에서는 신세대 문화와 대중 음악 발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김대중 대통령의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고 신낙균 문화 관광부 장관이 참석, 새로 개정된 청소년 현장 선포식이 마련됐다.

1차, 2차 예심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2팀이 각 축을 벌인 이번 가요제에서 1위(상금 400만 원과 트로피)는 거침없는 무대 매너로 '뿔'을 열창한 그룹 TON(김정국, 최우형, 노심지, 주희종)이 차지했다. 또 2위(상금 300만 원과 트로피)는 할머니 치료비를 마련하겠다고 참가해 많은 응원 속에 '널 위해'를 부른 그룹 FIEND(노상욱, 김재석)이, 3위(상금 200만 원과 트로피)는 '일년만 지나면'을 부른 얼터너티브 록의 혁신 그룹 남성 3인조 밴드 MISSION(이은구, 이은석, 전종혁)이, 우수상(상금 50만 원과 트로피)은 테크노 댄스와 함께 '그 전처럼'을 부른 송민정, 모던 록 '주문을 외워 뽀'를 부른 귀여운 여성 솔로 박효숙이 각각 수상했다.

남희석과 김지호가 진행한 『SBS 신세대 가요제』에는 H.O.T, 잭스키스, 핑클, 터보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 축하 공연을 펼쳤다.

신세대들의 가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한국 대중 음악의 차세대 유망주 발굴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특히 학력과 경력을 배제하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만큼 고등 학교 재학생인 학생들까지 참가, 학력과 경력을 무시한 신세대들의 열띤 노래 경연장이자, 새로운 가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 **SBS**